

# 혼술-혼밥에 지친 이들이 '혼말'을 나눠봐

March 07, 2017 김지영 기자

## 혼술-혼밥에 지친 이들이 '혼말'을 나눠봐



다리가 배를 짓는 노로 변형된 '노'의자(왼쪽)와 펠트 천으로 덮인 스피커 작품 '당신만을 위한 말'. 의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가구이지만 다리 대신 달린 노에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담겼다. 현대인처럼, '당신만을 위한 말'에 입을 대고 어떤 얘길 해도 다 듣고 물어줄 것 같다. 국제갤러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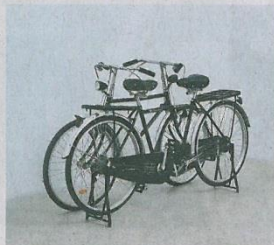
### 안규철 '당신만을 위한 말' 전

개념미술가의 '속 깊은' 전시  
그의 손이 닿으면  
평범한 사물에도 철학이 스며

전시장 한쪽 벽면에 지그재그의 목재 레일이 깔렸다. 레일 위에 나무 공을 올려놓으니 천천히 굴러간다. 레일 끝에 이르러선 아래쪽 레일로 갈아탄다. 이 설치작품의 제목은 '머무는 시간 I'. 일단 레일 위에 올라탄 공은 머물지 않고 계속 몸을 굴리는데, 왜 '머무는 시간'이란 제목이 달렸을까.

나무공이 굴러가는 시간만큼은 그 앞에서 머무르게 되기 때문이다. 안규철 씨(62)의 작품답다. 그는 개념미술가라는 설명이 따라 붙는 작가다. 평범한 사물에 그의 손이 닿으면 철학이 깃든다.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당신만을 위한 말' 전에서도 작가는 평범한 사물을 변주해 세계의 이면을 드러내 보인다.

전시장을 열면 관객들을 맞는 소품들이 그렸다. '평등의 원칙 II'에선 농구공, 배구공, 야구공, 축구공 등 실제론 저마다 크기가 다른 공들을 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았다. 얼핏 정난감처럼 보이지만, 획일화에 대한 비판이



'두 대의 자전거', 자전거 두 대를 반으로 갈라 손잡이는 다른 손잡이와, 안장은 다른 안장과 맞춘 모습으로 재구성했다. 어딘가로 갈 수도, 제자리에 머물 수도 없다. 국제갤러리 제공

입혀진다. 표범 가죽을 입힌 양은 '양의 털을 쓴 늑대'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펠트로 만든 '과묵한 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본래 기능을 상실한 종이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저러려 개념미술가라고 하는 건 절반만 맞는 말"이라면서 "사유의 과정이 출발점이 되지만 이를 구현하는 과정, 물질에 옷을 입히는 과정 또한 내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선 "관객들이 일상의 거품에서 벗어나 삶의 궤도 바깥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저서 '그 남자의 가방' 등 유려한 산문으로도 잘 알려진 작가다. 작품에 함께한 메모들에서도 그의 글솜씨를 엿볼 수 있다. 전시 제목이 된 작품 '당신만을 위한 말'이 그렇다. '당신만을 위한 말'은 진회색 펠트를 짠 방음 스피커로 만들어진 덩어리다. 작가는 이 작품에 이렇게 메모를 적어놓았다. '세상의 말들이 사라지는 소실점이고, 우리의 비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고, 진실과 거짓 너머의 영원한 침묵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아무도 알 필요 없는, 오직 당신의 한 마디 말을 위해 비어 있는 독백의 공간이다.' 혼술, 혼밥의 시대에 이 작품은 몸을 묻고 '혼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인다.

조소과를 졸업하고 오브제 작업을 해온 작가가 이번 전시회에서 회화작품을 선보인 것도 눈길을 끈다. '달을 그리는 법 II'는 보름달처럼 둥글고 밝은 원을 그린 10호 캔버스 작품 13점이다. 작가는 둥근 조명을 비춰 원을 그리고, 달과 가장 가까운 색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렇게 그려진 13점의 달 색깔은 모두 다르다. 한 사람의 시선으로도 이렇게 달 빛깔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달빛은 또 얼마나 다양할까. 진짜 달빛을 구현하려는 작가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자연의, 시선의, 사유의 다채로운 확장을 확인할 수 있어 의미 있다. 31일까지.

김지영 기자 kimjiy@donga.com